

농어촌공사 당진지사, 대호호 농업용수협의회 개최

안병권 기자 입력 2025. 4. 20. 14:30



[충청타임즈]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(지사장 주은규)는 지난 17일 당진 지역 대호 간척지 안전영농을 위하여 당진시 농업기술센터, 지역농업인 대표(석문면, 고대면, 대호지면 쌀전업농회, 당진시 농민회)와 농업용수공급 관리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했다.

2022년도에 대호간척지 경작 농업인들이 벼 염해피해 문제를 제기하여 농어촌공사에서 염도가 높은 용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어, 이에 농어촌공사 당진지사는 염해피해 기준 이하의 정상적인 용수를 공급했으며, 용수공급 과정에서 기온상승, 바람, 증발산량 증가 등 종합적인 영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해 왔다.

또한 농어촌공사는 농업인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원활한 농업용수공급으로 안전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지역 농업인 대표, 당진시(농업기술센터)와 2022년 9월 '대호호 농업용수공급 관리'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.

이날 협의회에서 농업인 대표, 당진시 관계자와 뜨거운 토론이 있었으며, 간척농지 염해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용수공급 시기, 염해피해 주의 알림문자를 수시로 제공하여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도록 논의했다.

앞으로 농어촌공사는 "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간척지 벼 재배 기술에 대한 교육 지원, 농업인들과의 정보 공유 등 관계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통하여 보다 더 안정적인 간척지 경작에 최선을 다 할 계획"이라고 밝혔다.

/당진 안병권기자 editor321@cctimes.kr